



삼성전자, 베이징 올림픽 마케팅 '스타트' 홍보대사 선정 등 다양한 '올림픽 캠페인' 발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무선통신분야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는 6월6일 베이징 다오위타이(釣魚臺)에서 '베이징올림픽 캠페인 발표회' (Olympic Campaign Launching)를 갖고 본격적인 올림픽 마케팅 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삼성전자는 삼성 홍보대사로 중국의 체조영웅 리우슈안을 선정한데 이어, 삼성올림픽 통합디자인 시스템(SO VIS)과 올림픽 기념폰 등을 최초로 공개했다. 또 삼성전자는 와우(WOW, Wireless Olympic Works) 서비스와 성화봉송, 올림픽 홍보관(OR@S, Olympic Rendezvous@Samsung) 등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다양한 올림픽 프로그램도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한 SOVIS는 타원형의 삼성 로고와 올림픽 오륜을 조합한 형상을 담고 있으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삼성의 기업 철학과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중국인들의 열망을 역동적으로 담아 낸 것이 특징이다.

삼성전자는 새로운 디자인 통합 시스템을 올림픽 캠페인 전반에 걸쳐 일관성 있게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최지성 사장은 "그 동안 삼성의 무선

통신 기술력을 바탕으로 WOW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무선 올림픽을 실현해 나가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며 "이번 베이징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올림픽 무선분야 후원사로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 세계 최초 UCC 서비스 휴대폰 선봬 세계 최대 UCC 사이트 유튜브와 전략적 제휴

LG전자가 세계 최대의 UCC 전문 사이트인 유튜브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모바일 인터넷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LG전자(www.lge.com 대표 남용)는 유튜브(www.youtube.com)와 세계 최초로 유튜브 서비스를 전면 지원하는 휴대폰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7월3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LG전자 휴대폰으로 직접 제작한 UCC 동영상은 PC를 통하지 않고서도 유튜브에 바로 업로드하거나 공유하는 것은 물론, 업로드된 동영상을 검색해 시청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LG전자는 이번 '유튜브'와의 전략적 제휴에 앞서, 지난 3월에는 유튜브의 모회사인 구글과도 구글 서비스 지원 휴대폰 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모바일 인터넷 분야에서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LG전자는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쉽게 유튜브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콘을 배치하고, 사진과 비디오를 촬영해 바로 유튜브에 업로드할 수 있는 최적화된 UI와 메뉴 등을 휴대폰에 내장할 계획이다.

LG전자는 유튜브 서비스를 지원하는 휴대폰을 오는 하반기 유럽 시장에 최초로 선보일 계획이다.

LG전자 안승권 MC사업본부장은 "세계 최대의 UCC 전문

사이트인 유튜브와의 제휴는 모바일 인터넷 분야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고객들이 원하는 혁신적인 인터넷 기능을 발빠르게 휴대폰에 적용해 모바일 인터넷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LG텔레콤, 기업지배구조 명예기업에 선정

LG텔레콤(www.lgtelecom.com 사장 정일재)이 한국기업 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원장 남상구)가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및 코스닥 등록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7년 기업지배구조 평가에서 지배구조 '명예기업' 및 이사회부문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LG텔레콤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연속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올해는 코스닥 부문에서 유일하게 최근 3년 연속 최우수지배구조 수상기업에게 수여되는 '명예기업'에 선정됐다. 뿐만 아니라 이사회 부문에서도 최고 평점을 획득, '우수기업'에 선정됨으로써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이라는 위상을 재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LG텔레콤이 지배구조 명예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임직원 윤리규정을 도입하고 주주를 위한 투명한 경영을 강조하는 등 주주의 권리보호에 적극 나섰으며, 이와 함께 사외이사의 활발한 활동 및 이사회 효율적 운영, 국내외 투자자를 고려한 충실한 공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2007년 지배구조 우수기업 시상식은 지난 6월22일 63빌딩코스모스홀에서 재정경제부 차관, 금융감독원 부원장,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증권업협회 회장, 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자산운용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삼성전자, 차세대 그래픽 D램 '512M GDDR4' 양산

삼성전자는 차세대 그래픽 D램인 GDDR4 지원 GPU(Graphics Processing Unit) 출시에 맞춰 업계에서 유일하게 3.2Gbps 512M GDDR4 D램 공급을 시작했다고 6월28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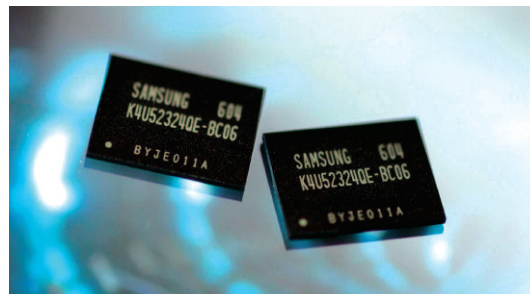
GDDR4 D램을 채용한 그래픽 카드는 기존 GDDR3 D램 탑재 제품 대비 25% 정도 빠른 그래픽 처리가 가능하며, 차세대 블루레이(Blue Ray) 및 풀(Full)HD급 영상 처리를 보다 자연스럽게 구현할 수 있다.

이번 GDDR4 D램 전용 GPU 출시에 맞추어 삼성전자가 GDDR4 D램을 본격 양산함으로써 GDDR4 D램 전용 그래픽 카드 개발과 고성능 그래픽 카드 출시 경쟁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GDDR4 D램은 최대 전송 속도가 초당 3.2Gbps의 고속 제품. 이 제품은 삼성전자가 현재 유일하게 양산 중에 있다.

최근 AMD가 최고 사양인 그래픽 카드(Radeon HD 2900XT)에 삼성전자 제품을 탑재한 1GB 고용량 그래픽 카드를 출시함에 따라 향후 그래픽 D램 시장이 GDDR3에서 GDDR4로 조속히 전환될 것으로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그래픽 D램을 PC용 그래픽 카드 시장뿐만 아니라, 게임기인 PS3 X박스360 위(Wii) 등 게임기에도 공급하고 있다.





KT, 양방향 IPTV 시대 막 열었다 8월 결합상품 출시로 올 30만 가입자 목표



KT가 실시간 방송을 제외한 리얼 IPTV 서비스인 '메가TV'를 선보이고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나선다.

KT는 올해 30만 가입자를 목표로 8월중 '초고속 인터넷+메가TV', '초고속 인터넷+메가TV+KTF SHOW'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KT(www.kt.co.kr 대표 남중수)는 7월4일 오전 프라자 호텔에서 메가TV 상품 설명회를 개최하고, 서울 및 과천, 동탄 등 경기도 일부 지역 서비스 제공을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전국 광역시 지역으로 메가TV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메가TV는 메가패스TV를 업그레이드한 서비스로 현재 서울 및 과천, 동탄 지역 메가패스 고객 중 인터넷 속도가 일정 품질이면 이용이 가능하며, 주문형비디오(VOD) 상품과는 달리 다양한 교육, 엔터테인먼트, 금융, TV 신문, 날씨 등 양방향 서비스와 HD(High Density)급 고화질이 특징이다.

VOD 서비스는 HD를 포함한 영화, 스포츠, 여성문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서비스와 KBS, MBC, SBS 등 지상파3사의 드라마, 연예오락, 시사교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SBS의 경우는 단순 VOD가 아닌 양방향 서비스를 추가

한 TV포털 서비스로 제공돼 TV방송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또한 TV신문 서비스와 커뮤니티 폐쇄이용자그룹(CUG) 서비스, 은행, 증권 서비스, 음악 서비스, 유아교육 서비스 등 추가 서비스도 대폭 강화했다.

남중수 KT 사장은 "KT가 이번 메가TV의 출시로 본격적인 IPTV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며 "그 동안 한쪽 방향으로 보기만 했던 TV가 정보와 지식, 검색 등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꿈의 TV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옥션, 이중화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목표복구시간 2시간 이내...금융권 수준 시스템

옥션이 금융권 수준의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했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옥션(www.auction.co.kr 대표 박주만)은 고객 데이터 운영 환경에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고 7월2일 밝혔다.

옥션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재해복구서비스(DRS:Disaster Recovery Service)를 새롭게 구축해왔다. 이번 서비스는 금융권에서나 볼 수 있는 하드웨어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완벽히 이중화 된 재해복구 시스템이라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이번에 구축된 서비스는 주 전산 시스템에 데이터가 입력되는 순간 원격지에 있는 DR센터에도 동일한 이기종 스토리지 및 디스크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복제되는 시스템으로, 예기치 못한 재해 발생시에도 곧바로 신속한 데이터 복구 및 전산 시스템 복구가 가능해 보다 안정적이고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LG파워콤, 결합상품 출시 이벤트 개최



LG파워콤이 LG데이콤과의 '초고속 인터넷+인터넷전화' 결합상품 출시를 기념해 이벤트를 실시한다.

LG파워콤(대표 이정식)은 초고속 인터넷 엑스피드(XPEED)와 LG데이콤의 인터넷전화 myLG070을 묶은 결합상품 출시 기념으로 'XPEED와 myLG070의 만남'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6월26일 밝혔다.

먼저, 7월 말까지 엑스피드 홈페이지(www.xpeed.com)에 접속해 이벤트 페이지에서 간단한 게임을 하면 추첨을 통해 엑스캔버스(1명), 코원 iAUDIO(1명), MS 무선 키보드와 마우스(3명), 월드오브워크래프트 피겨 타우렌(30명) 등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또, 이벤트 기간 동안 결합상품 신규 가입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포켓 노트북(1명), 액자형 에어컨(1명), LG 프라다폰(1명), LG 바나나폰(1명), 동영상 MP3P(3명), 소니 사이버샷(3명) 등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8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한편, LG파워콤은 초고속 인터넷과 유선전화 이용요금과 'XPEED+myLG070' 이용 시의 요금을 직접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엑스피드 홈페이지에 '요금절감 체험하기'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LG전자, PDP생산능력 월 22% 확대 생산성 극대화 위해 8면취로 전환

LG전자가 PDP패널 생산능력을 증전보다 월 20% 가량 늘리고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을 확대한다.

LG전자(www.lge.com 대표 남용)는 1장의 유리기판에서 42인치 PDP 8장을 생산할 수 있는 8면취 PDP라인을 본격 가동한다고 7월1일 밝혔다.

또 유리기판 1장의 크기도 기존 6면취 1956×1650mm에서 8면취 1956×2200mm로 확대됐다.

이로써 LG전자의 PDP 월 생산능력은 기존 월 36만대 대비 8만대 증가한 월 44만대로 22% 늘어난다.

또 LG전자는 최근 50인치 풀HD PDP를 양산하는 등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늘리고 있다.

LG전자 DD(Digital Display)사업본부장 강신의 부사장은 "하반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PDP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산량을 극대화 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KTF, 국제 영상로밍 무료체험 프로모션 실시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KTF가 자사 쇼(SHOW) 고객을 대상으로 영상 및 음성 자동로밍, 해외 SMS(단문메시지)까지 무료 체험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시작했다.

KTF(www.ktf.com 대표 조영주)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필리핀에서 쇼 자동로밍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월 50분씩 최대 150분 국제 영상로밍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7월1일 밝혔다.

또, 쇼 홈페이지(www.show.co.kr)에서 사전 등록된 고객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해외로밍이 가능한 모든 국가에서 SMS를 10건까지 무료로 보낼 수 있으며, 기간 중 사용한 음성 영상 자동로밍 요금을 5000원 할인 받을 수 있다. 8월까지 쇼자동로밍국가가 확대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도 자연 늘어나게 된다.

만일 쇼고객이 8월 31일 이전에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필리핀에서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매월 국제 영상로밍 50분 무료, 해외 SMS 10건 무료, 음성·영상로밍요금 5000원 할인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이 프로모션은 아시아 지역 글로벌 로밍서비스 협력을 위해 10개 지역 9개 이동통신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는 '커넥서스

모바일 얼라이언스(Conexus Mobile Alliance)'의 주요 회원사와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회원사 고객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KT, 디지털 Ann 전화기 출시 1.7GHz 대역 디지털 폰...

KT(www.kt.co.kr 대표 남중수)는 1.7GHz 대역의 디지털 전화기 전용 주파수를 적용한 디지털 안(Ann)전화기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디지털 Ann 전화기는 슬라이드 폰 방식에 MP3 기능을 탑재한 '콘텐츠플레이폰' 과 보급형 2종 등 총 3개 모델이다.

디지털 방식의 Ann 전화기는 기존 아날로그 방식 집 전화기에 비해 통화 품질이 우수하고, 크기도 더 작고 얇아졌으며, MP3, 게임, 벨소리, 배경화면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또한 디지털 폰 전용의 1.7GHz 주파수 대역을 이용, 2.4GHz 대역의 디지털 전화기에 비해 혼선이나 간섭 가능성이 적어 음질이 선명하다.





SKT, 상생협력 위해 중기에 정보통신 장비 무상 기증



SK텔레콤(www.sktelecom.com 대표 김신배)은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 관계의 강화를 위해 보유 중이던 정보통신 장비를 중소기업에 무상 기증기로 하고, 6월27일 정보통신부 류필계 정보통신정책본부장, 송진규 SK텔레콤 부사장, 하이온콤 등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기증식을 가졌다.

대상 장비는 ‘스펙트럼 분석기(Spectrum analyzer)’, ‘파형분석기(Oscilloscope)’ 등 20개 모델 총 72점으로, 취득가 기준 15억원이 넘는 규모이다.

이번 장비 기증식은 SK텔레콤 보유 장비 중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도움이 되는 유휴장비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강화를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하여 올해 3번째를 맞고 있다. 2004년에는 5억 규모, 2006년에는 8억 규모, 2007년에는 15억 규모의 장비를 지원하는 등 SK텔레콤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기증된 장비들은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네트워크연구조합(KNRA)을 통해 하이온콤, 콤텍시스템 등 해당 장비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국IBM “트럭에 블레이드 서버 싣고 길따라 마케팅”



한국IBM이 지난해 짝짤하게 재미를 봤던 ‘블레이드 버스’의 후속탄으로 5톤 윙 바디 트럭안에 IBM 블레이드 센터

를 구축하고 고객들을 직접 찾아가 블레이드 시스템의 장점을 시연해 보이는 ‘블레이드 러너’를 선보였다.

이는 지난해 선보인 ‘블레이드 버스’의 후속 마케팅 프로그램으로, 현재 인텔 기반인 블레이드센터 HS21과 AMD 기반의 LS21을 탑재했다.

한국IBM은 당초 지난 6월부터 시작해 7월 중순까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 했으나, 반응이 좋아 9월까지 행사를 연장기로 한 상태다.



SK C&C, 기업어음 신용등급 ‘A1’ 으로

SK C&C(www.skcc.com 대표 윤석경)는 3대 신용평가기관인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가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기존의 ‘A2+’ 에서 ‘A1’ 으로 상향조정 했다고 6월20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SK C&C가 장기 IT서비스 계약을 통해 보여준 안정적인 매출은 물론 이동통신, 공공 및 금융 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업 수익성 향상 및 우수한 시장지위 확보 등 사업 수행 전반에 걸친 경쟁력 향상의 결과로 풀이된다. 또 기존의 차입금 감소 추세와 가용 자금 및 우량 보유 자산 등 회사의 우수한 재무안정성도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SKT, IMS 기반 유무선 영상통화서비스 상용화 3개 인터넷전화업체와 제휴...

그 동안 동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이용자 사이에서만 가능했던 영상 통화 등의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이제는 네트워크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www.sktelecom.com 대표 김신배)은 세계 최초로 IMS 기반의 이동 전화와 인터넷 전화간의 '유무선 영상 통화' 상용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무선 영상 통화 서비스는 SK텔링크(www.sktelink.com 대표 조민래)와 SK네트웍스(www.sknetworks.co.kr 대표 정만원), 텔레프리(www.telefree.co.kr 대표 한형남) 등 3개 업체와 공동 제공하는 것으로, 인터넷 전화(070)를 통해 SK텔레콤의 영상 통화가 가능한 EV-DO/HSDPA단말기 사용 고객과 양방향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다.

특히, 이번 유무선 영상 통화 서비스는 '차세대 멀티미디어 망'인 IMS(IP Multimedia Subsystems)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연결 방식과 상관없이 데이터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유무선 영상 통화를 구현하게 됐다.

또한 '차세대 멀티미디어 망'을 통해 여러 종류의 네트워크를 연동할 수 있게 되어 통합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영상 통화 부가 서비스뿐만 아니라 타 네트워크간 개인화(Presence) 서비스나 인스턴트 메시징, 멀티미디어 메시징 등의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된다.



하나로텔레콤, 문화콘텐츠에 50억 원 투자

하나로텔레콤이 문화콘텐츠 확보를 위해 총 50억 원을 투자한다.

하나로텔레콤(www.hanaro.com 대표 박병무)은 하나TV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ISU-문화콘텐츠 투자조합'과 '기은-베넥스 문화콘텐츠 투자조합' 펀드에 각각 25억 원, 총 50억 원을 투자한다고 6월28일 밝혔다.

'ISU-문화콘텐츠 투자조합'은 이수창업투자와 벤티지 홀딩스, '기은-베넥스 문화콘텐츠 투자조합'은 기업은행 캐피탈과 베넥스 인베스트먼트가 공동 운영하는 펀드로, 하나로텔레콤을 포함해 다수 출자자가 포함돼 있다.

하나로텔레콤이 이번에 출자한 펀드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뮤지컬, 공연 등의 문화콘텐츠에 투자된다.

하나로텔레콤은 이번 문화콘텐츠 투자를 통해 현재 제공하는 하나TV의 콘텐츠 다양화와 함께 향후 IPTV 제공에 필요한 우수한 문화콘텐츠 확보 기반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하나로텔레콤 측은 이번에 투자하는 문화콘텐츠에 대해 IP 기반의 서비스에 대한 우선협상권 및 독점 제공 권리를 가지게 돼 보다 차별화된 콘텐츠를 하나TV 이용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진하 하나로텔레콤 하나TV사업부문 부사장은 "이번에 문화콘텐츠 투자를 통해 하나TV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하나TV에서만 즐길 수 있는 우수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 제공해 하나TV 이용고객들의 만족도를 충족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